

# 몰도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8
V. 종합의견 .....	9

## 몰도바

### I. 일반개황

면적	34천 km <sup>2</sup>	GDP	34억 달러(2006년)
인구	4.3백만 명(2006년)	1인당 GDP	876달러(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Moldovian Leu
대외정책	대 서방 우호관계 유지	환율(달러당)	12.91 (2006년말)

- 비옥한 농토를 기반으로 농림업(GDP의 16.0%)이 발달된 농업국임. CIS 국가, 특히 러시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의 경제여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블라디미르 보로닌 대통령이 2005년 4월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친서방 정책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냉각되었으며, Transdnistr 지역(러시아계)의 독립 움직임 등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f</sup>
경제성장률	6.6	7.4	7.5	4.0	5.0
재정수지 / GDP	1.6	0.5	1.6	-0.3	-0.2
소비자물가상승률	11.8	12.5	13.2	11.9	11.2

자료 : IFS, EIU

#### □ 실질 GDP성장률

- 1991년 구소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경제 침체가 지속되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에 힘입어 2000년 이후에는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02~05년 동안 연간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실질 GDP성장률이 러시아의 일부 품목(포도주 등) 수입금지 조치(3월)의 여파로 4.0%에 머물렀음.
- 2007년 1/4분기 중 고정자산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7.3%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최근 가뭄 피해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 등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보다 1% 포인트 낮은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 물가상승률 10%대 유지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해외근로자의 송금 유입 증가로 2003년 이후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해왔으며, 가뭄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2007년에도 약 11%의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 재정수지 소폭 적자시현 전망

- 정부의 세제 개혁성과에 힘입어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던 재정수지는 2006년의 수출여건 악화와 복지 관련 지출 증가로 인해 소폭 적자로 반전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시현이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2006년 1~9월 기준 산업별 GDP 구성비는 농림업 16%, 제조업 14%, 서비스업 57% 등

- 구소련 당시 비옥한 농토를 기반으로 농림업이 발달하여 구소련방의 농산물(담배 30%, 포도 및 포도주 20%, 과일 및 채소 10%)의 공급지역 역할을 하였으나, 농림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21%에서 2006년에 약 16%로 줄어들었음.
- 제조업 부문은 식품가공업 분야가 주도하고 있으며, 건설, 무역, 운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인 개혁이나 사업환경 개선이 여전히 미진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음.

### □ 교역구조(2006년 기준)

- 최대수출국인 러시아의 금수 조치로 인해 2006년 기준 수출비중은 러시아가 17.3%로 대폭 줄어들었으며(2005년 35%), 루마니아(14.8%), 이탈리아(12.2%), 우크라이나(12.2%)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몰도바 포도주 총생산량의 70%를 수입하던 러시아가 농약 및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06년 3월 일방적인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포도주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 반면 EU 국가와의 교역이 차츰 강화되어 2006년 대EU 수출은 전체 수

출의 35%를 차지하였음. 품목별로는 값싼 노동력 및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직물의 대EU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수출은 까다로운 진입장벽 때문에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제 원유가격 상승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06년의 에너지 수입규모는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음. 몰도바는 2001년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중임.

#### □ 비옥한 농토 보유, 천연자원 미비

- 한반도의 1/6에 불과한 국토 면적(33,800 km<sup>2</sup>)의 75%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옥한 농토 및 양호한 대륙성 기후는 농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별다른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출품목 다양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해외근로자의 송금이 경제의 큰 부분 차지

- 2001년 이래의 높은 경제 성장세는 GDP의 25%(비공식 자료로는 33%)에 달하는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액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 IMF 지도 하에 PRGF 프로그램 수행

- 2006년 5월 IMF와 빈곤 감소 및 성장촉진(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3년간 1억 6,70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수혜하게 되었음. IMF는 현재까지의 몰도바 정부의 개혁성과가 “고무적(encouraging)”이라고 평가하며 2007년 7월 3,300만 달러의 차관을 추가 승인하였음.

#### □ 제한적 민영화

- 독립 후 초기에는 총체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의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포도주 및 담배 산업 등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산업 부문의 민영화는 개혁의지 부족으로 다소 미진하였음.

- 2006년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총수입은 1,3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350여개의 국영기업에 대한 100% 지분 보유를 고수하고 있음.

□ 재정정책 개선 기미

- 정부는 2004~06년중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최고 소득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에 주력해왔음. 특히 2006년에는 총 세입의 35%를 차지하였던 부가가치세(VAT)를 연방예산에 통합·편입하였음.

□ 통화 정책은 안정적

- 몰도바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Moldova: NBM)은 해외노동자 송금과 외화 차입으로 인한 과잉유동성 및 인플레이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환율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시마다 시장에 개입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f</sup>
경 상 수 지	-135	-59	-263	-404	-500
경 상 수 지 / G D P	-6.8	-2.3	-9.0	-12.0	-12.0
상 품 수 지	-623	-754	-1,192	-1,591	-2,130
수 출	805	994	1,105	1,054	1,320
수 입	1,428	1,748	2,296	2,644	3,450
외 환 보 유 액	302	470	597	775	1,000
총 외 채 잔 액	1,942	1,946	2,053	2,482	2,882
총 외 채 잔 액 / G D P	98.0	74.9	70.4	74.5	80.7
D . S . R .	10.3	14.9	10.3	11.3	..

자료 : IFS, EIU

## □ 경상수지

- 몰도바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 5,900만 달러, 2005년 2억 6,300만 달러, 2006년 4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특히 2006년 상품수지 적자는 러시아의 금수조치 등으로 GDP의 50%에 육박하는 1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7년 1/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2003년에 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8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9억 8,8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수입액의 급증으로 월평균 수입액에 대한 외환보유액 비율은 3개월치에 불과함.

## □ 총외채잔액

- 외채잔액은 최근 꾸준히 늘어나 2006년말에는 GDP의 약 74%인 2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외채잔액의 GDP 비중은 2000년에 131%를 기록한 이후 개선 추세를 보여왔으나, 아직도 70~8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D.S.R은 최근 10~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현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도

- 2007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집권당인 공산당(PCRM)의 지지율은

34.2%에 그쳤음. 이는 2005년 총선에서 공산당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여 압승을 거두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몰도바연합당(Our Moldova Alliance), 민주당(Democratic Party)등이 각각 16.8%, 9.7%를 득표하며 세력을 확대하고 있음.

#### □ 야권과의 갈등 고조와 함께 정치 불안정성 다소 증대

- 정치개혁을 조건으로 2005년 4월 대선에서 보로닌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였던 일부 야당 세력과 집권당의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음. 갈등의 주요 원인은 Transdnistr 지역에 대해 러시아와 교섭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대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집권당 세력이 약화 기미를 보임과 함께 여야간의 공방이 격화되어 2009년 대선까지의 정치 불안정성은 다소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야권의 통합의지가 뚜렷하지 않아 대대적인 정치적 혼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생각되었던 러시아와의 관계 호전 기미

- Transdnistr 지역에 주둔하는 1,500명의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20명의 러시아인들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의 교섭을 추진하면서 급속 냉각되었던 러시아와의 관계에 호전 기미가 보이고 있음.

#### □ EU와의 교역관계 확대 예상

- 몰도바는 지난 2006년 EU와 GSP+(직물 수출시 혜택 부여)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동국의 주요 수출품인 식료품 수출시 특혜를 부과하는 ATP(Autonomous Trade Preference) 협상 타결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08년 초에 ATP 협정이 발효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EU 식료품 시장 진입이 가시화됨과 함께 수출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해외이주자 증가세 심각한 수준

- 최근 경제성장은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힘입은 바 크나, 해외이주자 수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최근 UNICEF 설문조사에 의하면 18~29세 인구의 90%가 해외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7년 1월 1일부로 루마니아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한때 루마니아의 일부였던 몰도바 국민들의 루마니아 여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Transdnestr 지역문제 여전히 불안요소

- 1992년 1월 내전이 발발하였던 Transdnestr 자치지역(러시아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로 1992년 7월 휴전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3선에 성공한 Igor Smirnov 대통령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낮은 수준

- o OECD : 7등급('06. 1) → 7등급('07. 1)
- o Moody's : Ca('02. 7) → Caa1('03. 5)
- o S&P : 없음
- o Fitch : B-('03. 2) → B-('05. 2)
- o I.C.R.G : 105/140('06. 8) → 122/140('07. 7)
- o Euromoney : 141/183('06. 9) → 135/183('07. 3)
- o I.I. : 133/174('06. 9) → 137/174('07. 3)

### 2. 외채상환실적

#### □ 과거에 여러 차례 채무 불이행 경험

- 1998년, 2000년 2회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음. 2002년에는 1997년에 발행된 외화채권(민간부문) 7,500만 달러 중 4,000만 달러에 대해 2009년까지 만기 연장함.
- 2006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약 25억 달러이며, 최근 수출 신용 등 민간채무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정부의 외채 도입지양 정책으로 공적채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1. 31 수교(북한과는 1992. 1. 30 수교)
- 주요협정: 없음
- 해외직접투자(2007년 6월말 현재, 총투자 기준): 0건
- 2006년 우리나라의 대 몰도바 수출액은 550만 달러(산업용 전자제품, 의약품 등), 수입액은 79만 달러(산업용 전자제품)로 양국간 교역관계는 미미한 수준임.

### V. 종합의견

- 동국은 국외노동자 송금 유입 및 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확대에 힘입어 2000년 이후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왔음. 그러나 2006년에 주요 수출대상국인 러시아가 일부 농산물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경제 성장세 또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또한, 정부의 세계개혁 성과로 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국영기업 민영화는 부진한 편임.
- 2005년 4월 블라디미르 보로닌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던 정치 체제는 야권과의 갈등 고조와 함께 2009년 대선까지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 급격히 악화되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TP 체결 등 EU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서구진영 편입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거시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빈약한

부존자원, 적은 인구,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 및 Transdnestr 지역분쟁, 단순한 수출구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이재홍  
(☎3779-6650) [jhlee@koreaexim.go.kr](mailto:jhlee@koreaexim.go.kr)